

‘무명천지시시 유명만물지모(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이름이 없으매 세상이 시작될 때이고, 이름 있음이 만물의 모태가 된다는 거야.

만물이 존재하려면 일단 이름이 있어야 해. <도덕경> 첫머리에 ‘이름 붙이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

하여간 세상 만물의 존재는 ‘이름 붙이기(naming)’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며, 이를 마케팅에서는 브랜딩(branding)이라 일컫지.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대한 책이니 <성경>도 잠깐 볼까? <성경> 처음이 창세기잖아. 1장 첫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에 있는 물과 공간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넓은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리고 보시니 좋았더라.”

잘 보렴, 성경에서도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름 붙이기야.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처음 교류하는 장면이 나와.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각각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니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